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	2025. 7. 11.(금)
담당 부서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팀	담당자	이조은 팀장(043-880-5711) 이주래 대리(043-880-5715)

전자여행허가(ETA, ESTA) 신청 시 대행 사이트 주의하세요

- 공식 수수료보다 최대 18배 높은 수수료 청구, 환불 요구에 무응답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국가별로 상이하나 90일 또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소비자상담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였다.

[국가별·유형별 전자여행허가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국가	유형	
	과도한 수수료	미발급
미국	28건	4건
영국	3건	1건
캐나다	1건	-
호주	-	1건
합계	32건	6건

□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유인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

소비자상담 3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하여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하여 결제하였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ESTA', 'ETA', 'VISA',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USD)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CAD) 기준 약 18배인 95달러(USD)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 대행 사이트가 아닌 사칭 사이트도 확산, 전자여행허가 발급도 안 돼

기존의 소비자 피해는 대행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발급조차 되지 않는 피해가 6건 확인되었다.

업체와 연락도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아, 전자여행허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 전자여행허가 공식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에 'gov'를 확인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공식 사이트 주소 및 수수료]

국가	공식 사이트 주소	수수료	
미국	https://esta.cbp.dhs.gov/esta	USD 21	약 28,000원
캐나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CAD 7	약 7,000원
호주	https://immi.homeaffairs.gov.au/	AUD 20	약 18,000원
뉴질랜드	https://nzeta.immigration.govt.nz/	NZD 17 또는 NZD 23*	약 14,000원 또는 19,000원
영국	https://www.gov.uk/eta	£16	약 30,000원
괌/사이판	https://g-cnmi-eta.cbp.dhs.gov/	USD 21	약 28,000원

* 모바일 앱 신청 시 NZD 17, 웹 신청 시 NZD 23

또한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가. 국가별

□ 미국 32건, 영국 4건, 캐나다 1건, 호주 1건

- 미국 방문을 위한 ESTA 발급 피해가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의 ETA 발급 피해도 6건 발생하여 총 38건 상담 접수

[상담 접수 현황]

국가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	상담 건수**
미국	https://www.estausavisa.org/	32
	https://usimmigration-assistance.com/ *	
	https://www.immi-assist.online/	
	https://usa-esta.eta.it.com/ *	
	https://www.estausa.co.kr/	
	https://www.estaentryform.com/	
	https://www.usimmigrationsupport.net/	
	https://www.applyesta.co.kr/	
	https://esta.visasyst.com/	
	https://evisaentry.com/	
	https://www.esta-org.com/	
영국	https://www.immi-assist.online/	4
	https://www.etaevisa.uk/	
캐나다	https://www.canada-visaseta.com	1
호주	https://www.eta-visas.org/	1
합계		38

* 현재는 국내 접속이 차단되었거나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

** 2025.1.1.~6.25.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

나. 피해유형별

□ 과도한 수수료 32건, 전자여행허가 미발급 6건

-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가 32건,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6건으로 확인
- 발급되지 않은 6건은 미국 4건, 영국과 호주 각 1건으로 확인

다. 사례별

사례 1 : 과도한 수수료 결제 후 환불 불가

소비자 A는 '25. 6. 6. ESTA 발급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를 검색함. 포털 상단에 노출된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고 124달러(USD)를 결제함. 결제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알아보니 공식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였음.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환불 약관에 따라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환불 요청 후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함.

사례 2 :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전자여행허가 미발급

소비자 B는 '25. 1. 30. 괌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위해 구글에 'ESTA'를 검색함. 최상단에 노출된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여 총 3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312달러(USD)를 결제함. 결제 후 2시간 만에 ESTA 승인 메일을 받은 것에 이상함을 느껴 알아보니 대행 사이트임을 알게 됨. 사이트 내 기재된 메일 주소는 수신이 거부된 메일 주소였으며, ESTA도 발급되지 않았음.

사례 3 : 이벤트 업체를 통한 수수료 지불 후 전자여행허가 미발급

소비자 C는 D 기업의 호주 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벤트 업체로부터 호주 여행 전자여행허가 발급 링크를 전달받음. '24. 12. 6. 해당 사이트를 통해 총 179달러(USD)를 결제함. 출국 일정이 가까워졌으나 전자여행허가 발급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공식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전자여행허가도 발급되지 않았음.

가. 미국

공식 사이트 화면	대행 사이트 화면

나. 영국

공식 사이트 화면	대행 사이트 화면

다. 캐나다

공식 사이트 화면	대행 사이트 화면

라. 호주

공식 사이트 화면	대행 사이트 화면

가. 계약 체결 전

- 구글 등 포털에서 'ETA', 'ESTA' 검색시 상단에 노출된 광고 사이트 접속 주의
 - 구글 등의 포털에서 'ETA', 'ESTA'를 검색할 때 광고 표시가 있는 사이트는 대행 사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식 사이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신청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은지 가격 확인 필요
 - 'ETA', 'ESTA'의 수수료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약 7,000원~28,000원 수준이다. 신청 수수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면 대행 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나. 계약 체결 시

- '정부와 제휴 관계없음' 관련 문구 확인
 -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대행 사이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 계약 체결 후

- 대행 사이트에서 결제 후 발급되지 않았다면 '차지백 서비스' 신청
 - 일부 국가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의 허가 상태를 확인하고 명시된 기간 내 발급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